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연중 제26주일

제2217호

2024년 9월 29일(나해)



## 오늘의 미사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마르코 9,43)

### ▶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 ▶ 제1독서: 민수기 11,25-29

### ▶ 화답송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 제2독서: 야고보서 5,1-6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 ▶ 복음: 마르코 9,38-43.45.47-48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 수, 금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 사목 일정

### 1) 11월 봉성체 안내

11월 봉성체는 11월 14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09월 29일(일)	오후 4시
10월 06일(일)	미사 없음
10월 13일(일)	오후 4시
10월 20일(일)	미사 없음
10월 27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3) 50주년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최말순 구네구단, 이윤교 요한, 이금순 요안나, 김마리 마리아, 김단 안드레아, 최은진 렐리아, 은정원 레지나, 최재혁 요한, 한경리 안토니오 가족, 인순 헬체, 장모니카 마리테레사, 심소영 크리스티나, 유유자 헬레나, 김형섭 사도요한, 문정현 마리오, 이승현 엘리사벳

### 4) 성전 건축 보수 기금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유유자 헬레나

### 5) 새로운 제대 운송을 도와 주신 고하식품 직원들과 고하식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6) 한복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뜻깊은 행사에 봉사자들은 가능하면 한복을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 사목위원회

1) 5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통독과 성경필사를 10/4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성경필사나 성경통독을 완성하신 분들은 방명록 코너나 또는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처음 장과 신약 마지막 장)

현재 통독, 필사를 진행 중인 분들은, 10/4일까지 창세기 처음 장과 10/3일 마치고 마지막 장과 언제까지 완성을 하시겠다는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기를 바랍니다(나눠드린 통독 책자에 있는). 자세한 문의는 방명록 코너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주기도도 10/4일 마감합니다.

### 2) 50주년 행사 안내

10월 5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 제대 축성 및 김대건 신부님 유해 안치 미사 및 심포지엄 주례: 대전교구 총대리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님 - 심포지엄 (주제: “하와이 한인 천주교 공동체의 역사와 의미”)은 미사 후에 진행됩니다.
10월 6일(일) 오전10시30분-오후 3시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미사 주례: 래리 실바 주교님

\* 10/6일에는 다른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꼭 이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평일 미사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9월 30일-10월 4일 / 10월 8일-10일

4) 본당 설립 50주년 및 제대 도네이션은 10/4까지 접수합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및 제대 도네이션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보수 공사 기금 도네이션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 알아봅시다

### 1) 사목회장단 및 5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일시: 9월 29일(일) 대청소 후

장소: 성당

### 2) 꾸리아 월례회의 안내

일시: 9월 2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3)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10월 13일(일) 새신자 교리실

### 4) 성령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10월 1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5)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10월 1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10월 5/6일 Ohana In Christ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9월 21/22): \$11,842**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2,815	\$3,850	\$84	\$5,093

###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2023년 9월 24일) 주제로 “이주 혹은 이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자유”를 선정했다. 지난 1914년 제정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은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분쟁과 박해로 실향민·난민이 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주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지낸다.

이주하지 않을 권리가 이주할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교황청 온전한인간발전추진부는 올해 주제가 아직 국제법에 의해 성문화되지 않은 권리, 곧 “고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권리는 이주할 권리보다 우선하며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

“여기엔 공동선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 존엄하게 살 권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공동 책임 행사를 통해 출발지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대 이주의 원인: 이 측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지난 2013년 제9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이주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며, 이 권리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능력과 열망과 계획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이주할 권리에 앞서 이주하지 않을 권리를 재천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조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난 1998년 행한 연설을 떠올리며 “자기 조국에 산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사람들이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계속해서 통제할 때에 비로소 유효합니다.”

온전한인간발전추진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실이 현대 이주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찰을 요한다고 말했다.

출처: 바티칸 뉴스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 우세영 (알렉시오)

성인명	우세영 알렉시오 (禹世英 Alexis)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845-1866년

성 우세영 알렉시오(禹世英, Alexius)는 세필(世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황해도 서흥(瑞興)의 향교골에서 대대로 선비 생활을 하던 부유한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는 18세가 되던 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알게 된 김기호 요한(金起浩, Joannes)이라는 전교회장을 통해 천주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어 천주교에 입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세례를 받고 즉시 집으로 돌아온 성 우세영 알렉시오는 천주교를 반대하는 부모와 가족에게 먼저 전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천대가 극심할 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계속 되는 저주와 악담까지 참아 받아야만 했다. 가족들은 이웃의 구설에 오르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를 감금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운유함과 인내로써 잘 이겨냈다. 그 후 그는 “차라리 네가 집에 없으면 죽는 것으로 여겨 위안이 될지 모른다.”라는 부친의 말을 듣고,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성 정의배 마르코 회장 집으로 가서 만 1년 동안 머물며 묵상과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이때 그는 집안 식구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교리서 필사와 번역, 십이단 편찬 등에 전력하였다.

그 후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아들이 믿는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자 차근차근 천주교 진리를 설명하며 전교한 결과 가족과 친척 2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었고, 정부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소동이 일어나자 더는 고향에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는 수없이 모든 가산을 버리고 평안도 논재(평안남도 대동군 울리면 답현리 소재)로 이사하여 가족

과 함께 열심히 수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866년 2월 16일 이웃 마을인 고둔리 공소회장 집에서 축일을 지내다가 성 유정률 베드로(劉正律, Petrus) 등 여러 신자와 함께 체포되어 평양 감영으로 끌려갔다.

첫 번째 심문은 잘 이겨냈지만 두 번째 심문에서 그만 혹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한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석방되자마자 자신의 배교에 대해 깊이 뉘우친 그는 스승인 성 정의배 회장과 성 베르뇌 시메온 주교에게 사죄하고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갔다. 그러나 이미 성 정의배 회장이 체포되었음을 안 그는 회장 집을 지키던 포졸들에게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고 자수하여 체포되었다. 포도청으로 끌려간 그는 과거 배교한 사실을 알고 있는 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교를 강요당하며 심한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끝까지 열심한 신앙으로 이겨냈고, 옥중에 있는 성 베르뇌 시메온 주교에게 지난날 배교했던 일에 대한 사죄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되찾은 그는 용덕(勇德)을 발휘하여 모든 고문을 잘 참아 견디었고, 혹심한 곤장과 많은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용감하게 고수하여 기다리던 사형선고를 받았다.

성 우세영 알렉시오는 1866년 3월 11일 새남터에서 스승인 성 정의배 마르코, 푸르티에(Pourthie, 申) 신부, 프티니콜라(Petitnicolas, 朴) 신부 등과 함께 군문효수형(軍門梟首刑)을 받아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성 우세영 알렉시오는 1968년 10월 6일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성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의 한 명으로 시복되었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한국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성인품에 올랐다. 그의 축일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함께 경축하고 있다.

###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봉헌

9월 22일까지 묵주기도 봉헌은

총 658,878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

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 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 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